新東亞

1964年 9月29日 第3種郵便物認可 1968年 6月18日 編集兼発行人 金 載 華 東亞日報社 301號 1971年10月1日 發行(每月1回1日發行)



1991. 9月

〈트럼펫과 아이젠하워 시대〉

Live better with better medicine

韓國唯一의 抗生医薬品原料生産및 供給会社
韓國唯一의 美國政府FDA公認 製薬会社
韓國唯一의 抗生剤原料輸出会社(美國·日本)

종근당은 巨大企業으로서가 아니라 模範企業으로서 發展하고 있읍니다

주식회사 종근당
医薬品 事業部

THE SHIN-DONG-A published monthly by THE DONG-A ILBO, SEOUL, KOREA, printed in Korea

續·國防秘話

「三字符」와 「하계훈략」(一九四五~六〇)

崔昌華 記者

하——좋은일을 하셨어.

권지백은 만족한 수염을 머금었다。

「하추고」 말하며 한 잎이 가지 어젓나여?」

하며 권지백을 보았다。

권지백은 다시 가는 손가락을 보았다。

「하추고」

「하나구」

「하늘하늘 하얀꽃」

「좋은 생각이군」

권지백은 손가락을 꼽았다。 꽃을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았다。



그 화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다. 그 옷은 흰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 여성들이 가장 즐겨 입는 옷차림이었다. 그런데 이 옷은 조선 여성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옷이었다. 그래서 조선 여성들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이 옷은 조선 여성들이 입기에는 너무 화려한 옷이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여성들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양반집 부녀자들은 이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이 옷은 주로 기생들이 입었던 옷이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양반집 부녀자들이 이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여성들의 얼굴 표정이다. 그림 속의 여성들은 모두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또한 남자들 앞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 시대 여성들의 생활을 크게 제약하였다.

이 그림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조선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신윤복의 「미인도」

신윤복(申潤福)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 호는 혜원(蕙園)이다. 그는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힌다. 그의 그림은 주로 양반들의 풍류와 기생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였다.

「미인도」는 신윤복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 여인이 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세로 113.5cm, 가로 50.5cm의 비교적 큰 화폭에 그려져 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머리에 큰 가체를 얹고 있으며,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다. 그녀는 오른손에 담뱃대를 들고 있으며, 왼손은 옷고름을 만지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당시 양반집 부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인왕제색도」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 정선(鄭敾)이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비가 갠 뒤의 산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정선은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리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였다. 그는 금강산, 한양 등 조선의 산천을 많이 그렸다. 「인왕제색도」도 그러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그림에서 산은 짙은 먹으로 표현되었고, 바위는 붓을 세워 찍어 내리는 기법으로 그려졌다. 나무는 가지만 앙상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정선 특유의 것이다.

「송도삼절」과 황진이

「송도삼절」은 조선 중기의 기생 황진이(黃眞伊)를 송도의 세 가지 뛰어난 것, 즉 박연폭포,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일컫는 말이다.

황진이는 개성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지녔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와 노래에 능하였으며, 거문고 연주에도 뛰어났다. 또한 학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황진이는 당시 양반 사대부들과 교유하였으며, 그들과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양반들에게 결코 천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는 그녀가 금강산을 유람하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족선사(知足禪師)를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황진이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송도삼절(松都三絶)

송도삼절은 조선 중기의 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송도는 개성의 옛 이름이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으며, 조선 시대에도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송도삼절에 포함되는 세 사람은 박연폭포, 서경덕, 황진이이다. 박연폭포는 개성 근처에 있는 폭포이며, 서경덕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다. 황진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세 사람을 송도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이들은 모두 개성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송도삼절과 황진이

송도삼절 중 한 사람인 황진이는 조선 중기의 기생이었다. 그녀는 시와 노래에 능하였으며, 거문고 연주에도 뛰어났다. 또한 학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황진이는 많은 양반 사대부들과 교유하였으며, 그들과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양반들에게 결코 천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는 그녀가 금강산을 유람하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족선사(知足禪師)를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황진이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송도삼절과 박연폭포

박연폭포는 개성 근처에 있는 폭포이다. 높이는 약 37m이며, 폭이 좁은 곳은 약 4m, 넓은 곳은 약 20m 정도이다. 폭포 아래에는 깊은 못이 있다.

박연폭포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였다. 조선 시대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박연폭포는 또한 서경덕과 황진이와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경덕은 이곳에 자주 와서 학문을 닦았다고 전해지며, 황진이는 이곳에서 서경덕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서경덕과 화담학파

서경덕(徐敬德)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호는 화담(花潭)이다. 그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개성 근처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화담학파를 이루었다.

서경덕은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하였다. 이기일원론이란 이(理)와 기(氣)가 하나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理)보다 기(氣)를 더 중시하였다.

서경덕의 학문은 이이(李珥)와 이황(李滉)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이는 서경덕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황은 서경덕의 학문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서경덕은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화담학파의 학풍

화담학파는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학파로, 이기일원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학파의 학자들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중시하였다.

화담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서경덕 외에 이이, 이황, 조식, 성혼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 중기의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화담학파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은 조선 후기의 실학(實學)에 큰 영향을 끼쳤다.

「おまえは、ほんとうに、あの人を愛しているのか。」

「愛しています。」

「ほんとうか。」

「ほんとうで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死ぬ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人を殺す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嘘をつく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盗みをする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裏切る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地獄へ行く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天国へ行く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神を捨てる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神を捨てることができるか。」

「できます。」

「それでは、あの人のために、神を捨てること

未來派의 再現

·현대식 건물로 우뚝 솟은 하늘과 「캠코」의 수평선 「수도 京都미래」가 그것이다。 그 중 미래파 건축의 비 현실적인 주장은 별개로 하고 그 기술적 「건축 양식」은 현재 세계 각국에 「철골콘크리트」라는 양식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가장 시대에 적응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건축은 「캠코」의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현재 세계 각국에 유행하는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캠코」의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현재 세계 각국에 유행하는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캠코」의 과거는 어떠한가。 「캠코」의 과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이었다。 그 시대의 건축은 어떠한 양식이었는가。 그 양식은 「미래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철골콘크리트」의 양식이었는가。 그 양식은 「미래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철골콘크리트」의 양식이었는가。 그 양식은 「미래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철골콘크리트」의 양식이었는가。

「캠코」의 과거는 어떠한가。 「캠코」의 과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이었다。 그 시대의 건축은 어떠한

[주석] 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2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3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4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5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6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7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8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9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0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1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2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3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4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5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6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7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8)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89)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0)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1)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2)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3)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4)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5)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6)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7) 이 시기 화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휘준, 「조선 초기 회화의 양식적 변천」, 『한국회화사론』(서울: 일지사, 1992), 169~170쪽 참조.

198) 이

『문학과지성』 1975년 봄호 (통권 제19호), 1975년 3월 1일 발행

고원처럼 산그늘 깊은 곳

「명서골」로 가서 「궁」 「하」 「동」 「리」 「산」 「골」 「짜」 「기」 「밭」 「을」 「일」 「구」 「어」 「먹」 「고」 「사」 「는」 「사」 「람」 「들」 「이」 「있」 「다」 「는」 「말」 「을」 「듣」 「고」 「서」 「야」 「겨」 「우」 「명」 「서」 「골」 「이」 「라」 「는」 「곳」 「이」 「있」 「다」 「는」 「것」 「을」 「알」 「았」 「다」. 「명서골」은 「명서」 「리」 「에」 「서」 「도」 「한」 「참」 「을」 「더」 「들」 「어」 「가」 「야」 「하」 「는」 「산」 「골」 「짜」 「기」 「밭」 「이」 「었」 「다」.

「명서골」 「짜」 「기」 「밭」 「은」 「명」 「서」 「리」 「에」 「서」 「도」 「한」 「참」 「을」 「더」 「들」 「어」 「가」 「야」 「하」 「는」 「산」 「골」 「짜」 「기」 「밭」 「이」 「었」 「다」. 「명서골」 「짜」 「기」 「밭」 「은」 「명」 「

禁核武与「和平共处」

朱学范 王炳南 乔冠华



朱学范 王炳南 乔冠华

禁核武与「和平共处」

——在亚非拉人民反对美帝国主义的斗争中，中国人民同亚非拉人民的团结和友谊不断加强。

朱学范 王炳南 乔冠华

今年四月，我们参加了在印度尼西亚万隆举行的亚非会议。这是亚非拉人民团结起来，反对美帝国主义的一次大会师。

这次会议，是亚非拉人民团结斗争的产物。

亚非拉人民在历史上都曾经遭受过帝国主义的侵略和压迫。他们为了争取民族独立和解放，进行了长期的英勇斗争。第二次世界大战后，亚非拉人民的觉悟空前提高，民族独立运动蓬勃发展，形成了一股不可抗拒的历史潮流。

但是，美帝国主义并不甘心自己的失败。它们为了维持和扩大自己的势力范围，对亚非拉人民的独立运动进行了种种破坏。

美帝国主义的破坏活动，使亚非拉人民的团结和友谊受到了严重的威胁。

在这种情况下，亚非拉人民迫切地感到，必须团结起来，共同反对美帝国主义的侵略和压迫，维护世界和平。

这就是这次会议的基础。

这次会议的成功，是亚非拉人民团结斗争的胜利，是亚非拉人民友谊的胜利。

会议期间，我们同各国代表团进行了广泛的接触和交谈。

我们同印度尼西亚、缅甸、锡兰、巴基斯坦、印度、阿富汗、埃及、叙利亚、黎巴嫩、约旦、沙特阿拉伯、也门、利比亚、苏丹、埃塞俄比亚、利比里亚、加纳、几内亚、摩洛哥、突尼斯、阿尔及利亚、柬埔寨、老挝、越南民主共和国、锡兰、尼泊尔、日本、巴基斯坦、印度、阿富汗、埃及、叙利亚、黎巴嫩、约旦、沙特阿拉伯、也门、利比亚、苏丹、埃塞俄比亚、利比里亚、加纳、几内亚、摩洛哥、突尼斯、阿尔及利亚、柬埔寨、老挝、越南民主共和国代表团的团长和一些代表，都进行了会谈。

我们同这些国家的代表团的会谈，主要是围绕着亚非会议的目的和任务，以及如何加强团结和友谊等问题进行的。

会谈中，大家一致认为，亚非拉人民团结起来，反对美帝国主义的侵略和压迫，维护世界和平，是当前亚非拉人民的迫切要求。

大家还